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대한 개념분석

서형은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Concept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Hyung-eun Seo

Departmen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요약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의 방법을 이용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이다. 최근 10년 간 윤리역량에 대한 국내 및 국외 선행연구 최종 11편을 선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개념은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판단력,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 윤리적 행위의 실행력이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선행요인은 자기이해, 지지적 환경, 윤리적 갈등 경험, 윤리교육 경험이었으며, 결과는 간호전문직관,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환자안전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다차원 간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간호사의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판단력,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 윤리적 행위의 실행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간호사 스스로 충분한 자기이해와 학생간호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지지적 환경, 과거에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했던 경험 및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향상은 결과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학생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한 윤리역량의 속성이 잘 반영된 도구 개발 연구를 제안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The concept analysis process by Walker and Avant was used to clarify the meaning of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As a result, the concept of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was defined in terms of ethical sensitivity, ethical judgement, willingness to implement ethical behavior, and execution power of ethical behavior. Self-understanding, supportive environment, experience of ethical conflict and experience of ethical education can be seen as antecedents for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The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results in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nursing, and patient safe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establish a basis for an instrument to evaluate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This will guide educators, as well as managers in healthcare,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for improvement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Keywords : Concept analysis, Ethical competence, Healthcare, Moral competence, Nursing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생간호사란 간호대학 또는 간호학과 정규교육과정 중 임상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의미한다[1]. 학생간호사는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실무를 경험

하며 간호사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 [1]. 특별히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간호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응용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1,2].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갖

*Corresponding Author : Hyung-eun Seo (Gyeongbuk College of Health)

Tel: +82-54-420-9126 email: heseo@gch.ac.kr

Received October 10, 2017

Revised November 6, 2017

Accepted January 5, 2018

Published January 31, 2018

게 하는 과정으로 학생간호사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2].

그러나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학생간호사에게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학생간호사는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긴장감, 불안감, 무력감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의료진 및 환자와의 관계, 같이 실습하는 동료학생 및 간호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모호한 역할과 실습과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 병원이라는 긴장감이 넘치며 친숙하지 못한 환경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1-3]. 이에 따라 학생간호사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간호 전문직관 확립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간호사라는 진로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3].

특히 학생간호사가 경험하는 임상현장은 최근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배아복제, 낙태, 대리모, 치료중단, 안락사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1].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생간호사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고, 이러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생간호사는 또 다른 혼란을 느낀다[1]. 학생간호사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함에 따라 임상현장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무더지고, 도제식 교육방법 및 관행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윤리적 판단력이 와해된다[4]. 따라서 무엇보다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에 앞서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할 학생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철학이 확립되어야 하며, 실제 간호현장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과학적 간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행위 실천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4], 이러한 차이는 임상현장 환경이 권위적이고, 수직적이기 때문이며, 학생간호사 스스로가 윤리적 행위 실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자신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본인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1,4]. 따라서 학생간호사의 윤리적 행위 실천을 위해서는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 확립뿐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및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통틀어 윤리역량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윤리역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으며,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마다 개념의 정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Park과 Peterson [5]은 이에 대해 윤리역량은 다른 역량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모든 역량들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윤리역량을 선한 삶을 추구하고 선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능력과 동기로 가치 있고 선하다고 여겨지는 목표를 향한 행동과 직결되는 능력으로 역량 개념을 적용하여 도덕적 수행 능력을 설명하였다[5]. Liszka [6]는 윤리역량을 선한 윤리적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의존하여 옳은 행동을 언제나 일관성 있게 수행하도록 숙달된 것으로 정의하고, 윤리역량이 윤리 정서, 윤리 강점, 덕목, 지혜, 그리고 윤리 지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Jormsri 등[7]은 태국 간호사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리역량을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지각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 감정을 성찰해보고, 상대방에게 최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윤리역량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윤리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한 그들의 강조가 궁극적으로 윤리적 행동의 실천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일관적이다. 즉, 윤리역량은 도덕성을 설명하는 어떤 개념보다도 윤리적 행동이 강조된 용어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개념의 사용범위를 점검하고, 속성을 파악하여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개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간호사가 윤리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ethical competence) 개념의 사용범위를 점검하고 속성을 파악하여 학생간호사에게 있어서의 윤리역량 개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8]의 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대한 개념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 방법은 현장에 대한 관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관련문헌을 분석하여 특정 개념의 정의, 목적, 관계, 근거, 과정, 증거 등이 기존의 문헌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윤리역량에 대한 개념의 사용범위를 파악하고, 각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의 선행요인, 속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여 개념분석을 시행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최근 10년 간 윤리역량에 대한 국내 및 국외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며, 국외문헌은 Cumula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을, 국내문헌은 RISS (www.riss4u.net)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국외문헌의 경우 ‘ethical competence’ 또는 ‘moral competence’로 하였으며, 국내문헌의 경우 ‘도덕역량’ 또는 ‘윤리역량’으로 하였다. 검색결과 CINAHL에서 35편, RISS에서 6편의 연구가 검색되어 총 41편의 연구가 검색되었다.

그 중 연구제목을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연구 16편을 제외하였으며, 25편의 연구 중 초록을 통해 15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전문을 통해 최종 문헌 11편을 선정하여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Figure 1).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 방법은 Walker와 Avant [8]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8단계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개념을 선정한다.
- 둘째, 개념분석의 목적을 설정한다.
- 셋째, 개념의 모든 사용을 확인한다.
- 넷째, 개념의 결정적 속성을 확인한다.
- 다섯째, 개념의 모델사례를 제시한다.
- 여섯째, 개념의 부가사례(유사사례, 반대사례, 관련사례)를 제시한다.
- 일곱째,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 여덟째, 개념의 경험적 증거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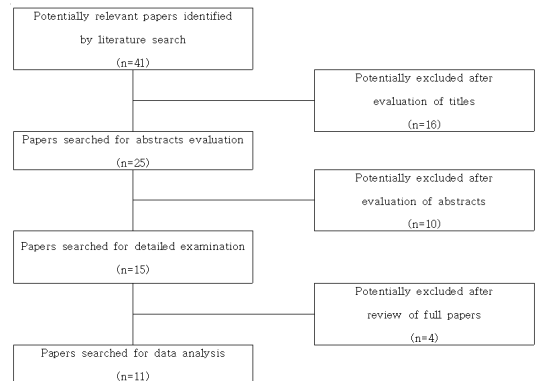


Fig.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3. 연구결과

3.1 개념의 선정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는 학생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철학을 확립시키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과학적 간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도록 학생간호사를 준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1,4]. 또한 학생간호사의 윤리적 행위 실천을 위해서는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 확립뿐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및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4].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윤리역량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마다 개념의 정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5-7].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개념의 사용범위를 점검하고, 속성을 파악하여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개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3.2 개념분석의 목적

본 연구는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념의 속성 및 선행요인과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3.3 개념의 모든 사용 확인

3.3.1 사전적 정의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윤리역량”은 “윤리”와 “역량”의 합성어로 먼저 “윤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행위를 할 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에 따르는 것[9]을 말하고, “역량”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수단을 동원하여 삶을 편안하게 하는 능력[9]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윤리역량”은 선한 삶을 추구하고 선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능력과 동기를 가진 것으로 선하다고 여겨지는 목표를 향한 행동과 직결되는 능력[9]을 의미한다.

3.3.2 문헌에서의 개념사용

윤리역량은 경영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윤리역량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6,7](Table 1). 윤리역량에 대해 Lee와 Moon [4]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적 또는 문화적 역량의 통합으로 정의하였으며, Friedrich 등[10]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윤리적 관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Solum 등[11]은 환자에게 최고 수준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느낌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Asahara, Kobayashi와 Ono [12]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인식하거나, 행동을 판단하고, 환자에게 최고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Poikkeus, Leino-kilpi와 Katajusto [13]는 윤리역량이 지식, 기술, 및 판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윤리역량은 대체로 일반적이지만,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적인 행동의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Asahara 등[12]는 윤리역량을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환자간호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annaerts, Gastmans와 Casterle [14]는 윤리역량을 윤리적 인식, 윤리적 반성, 윤리적 행동의 연속성으로 보았으며, Gopee [15]는 개인이 윤리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직면하여 분석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직업윤리강령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윤리역량이라고 하였다. Schaefer와 Junges [16]는 윤리역량이 윤리적 요구를 비판적이고 반성적이며, 해결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Sporrong 등

[17]은 윤리역량을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Ma [18]는 윤리역량을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과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발전된 수준에서 윤리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Table 1. Definitions of ethical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in literature review

Author(year)	Definition
Lee & Moon (2012)	Ethical competence is the integration of not only individual competence but also the groups and cultural capacities of individuals.
Friedrich, Hemmerling, Kuehlmeier, Nortemann, Fischer & Marckmann (2017)	Ethical competence is the degree to which a person judges other people's arguments consistently based on their own moral points of view, rather than based on agreement with their opinions on a given issue.
Solum, Maluwa, Tveit & Severinsson (2016)	Ethical competence is person's ability to recognize how his or her feelings influence what is good and bad in particular situations and to reflect on them, in order to make decisions and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benefit for the patient.
Asahara, Kobayashi & Ono (2015)	Ethical competence is the ability or capacities to perceive or recognize ethical situations, to judge action, and to act in ways that bring about the optimal good for their subjects.
Poikkeus, Leino-kilpi & Katajusto (2014)	Ethical competence is possessing knowledge, skill and judgement relating to a range of skills and personal attributes and attitudes. Although requirements are common, they vary according to the work roles and contexts. Overall ethical competence is a foundation for professional behaviour.
Asahara, Ono, Kobayashi & Omori (2013)	Ethical competence is the ability of nurses to deal with ethical issues in their proactive, and it influences the quality of their care directly.
Cannaerts, Gastmans & Casterle (2014)	Ethical competence is the possession of ethical knowledge next to the ability to "see" what a situation presents (ethical perception); to reflect critically about what nurses know, are, and do (ethical reflection); to bring out the ethical practice (ethical behavior); and to "be" ethical.
Gopee (2008)	Ethical competence is a psychological skill that comprises the ability of an individual to recognize, confront and analyse ethical situations, realize responsibilities, and act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their profession's code of ethics.
Schaefer & Junges (2014)	Ethical competence is dealing with the ethical demand in a critical, reflective and resolute manner.
Sporrong, Arnetz, Hansson, Westerholm, & Hoglund (2007)	Ethical competence is the ability of a person, who confronts a moral problem, to think and act in a way that is not constrained by moral fixations or automatic reactions.
Ma (2012)	Ethical competence is the affective orientation to perform altruistic behaviors towards others and the ability to judge moral issues logically, consistently, and at an advanced level of development.

3.4 개념의 결정적 속성 확인

개념의 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개념분석의 핵심으로 다양한 사용범위에서 도출되며 개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속성들을 제시하여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8].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11 편의 문헌을 통해 개념의 속성을 분석하였다(Table 2). 분석 결과,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미래의 간호사로서 책임과 권리를 인식하고,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일관된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윤리적 행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갖추어 환자간호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정의를 통해 도출된 윤리역량의 속성은 윤리적 민감성[12,13,17], 윤리적 판단력[11,12,14,15,18],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4,10-12,19], 윤리적 행위의 실행력[4,11,16]이었다.

첫째, 윤리적 민감성은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윤리적 차원을 정의하는 정도[12,13]를 말하며, 특정 상황의 윤리적인 문제를 규명하고, 윤리적 차원에서 판

Table 2. Antecedents, attributes and consequences of ethical competence in literature review

Author (year)	Attributes	Antecedents	Consequences
Lee & Moon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iability and relationship orientation Self-management and leadership Eternal citizenship Pursuing universal values and the public good A sense of justice and principle Trust and responsibility Execution power and willingness to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dividual under situation Experience of conflict sit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actice
Friedrich, Hemmerling, Kuehlmeier, Nortemann, Fischer & Marckmann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flective thinking Critical thinking Willingness to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Ethical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tient safety Rights of patient
Solum, Maluwa, Tveit & Severinsson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Knowledge Skill Attitude Motivation Behavior Jud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lf-understanding Self-reflection Experience of conflict sit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fessionalism
Asahara, Kobayashi & Ono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Judgement based on the values of community members Strong will to face difficult situation Cooperating with relevant people or organiz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erience of conflict situation 	
Poikkeus, Leino-kilpi & Katajusto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Knowledge Reflection Leader's key r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sitive feedback Stress Health problem Quality of care Moral distress Job satisfaction
Asahara, Ono, Kobayashi & Omori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ranging the caring situation to bring optimal benefit Strong will to face difficult situations Judgement based on the values as a nurse Judgement based on the standards of the organization or outsider recognition of a discrepancy of int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Ethical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Quality of care
Cannaerts, Gastmans & Casterle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flective skill Analytic ski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fe learning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havior
Gopee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odness and rightness Justice and fairness The value of life Truth telling and honesty Individual freed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Mentor's leadership Student's responsi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tient safety
Schaefer & Junges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tion focused on ethics Professional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rsonal value Ethical education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Quality of care
Sporrong, Arnetz, Hansson, Westerholm & Hoglund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scerning situation Realizing responsibilities Understanding Awareness Ref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nagement involvement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ral distress Performance feedback
Ma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Justice judgement Altruistic behav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ental authority Frequency of delinquent behavior Peer inter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sychologic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Social emotion development

단할 수 있는 정도[17]이다.

두 번째 속성인 윤리적 판단력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윤리적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도 [11,12,18]를 말하며,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윤리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11,14,15,18]을 포함한다.

세 번째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리적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4,11,16]를 말한다.

마지막 네 번째 윤리적 행위의 실행력은 윤리적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즉,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여 실천하는 것[12,14,15,18]이다.

3.5 개념의 모델사례

모델사례는 개념의 주요 속성을 모두 포함한 예를 말하며[8],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속성인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판단력,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 윤리적 행위의 실행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모델사례를 구성하였다.

22세 학생간호사 K는 신생아실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었다. 임상실습 도중 신생아 A의 기저귀가 목직한 것을 발견하고,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기저귀를 교환해야 함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신생아실 간호사는 학생간호사 K에게 기저귀 교환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그 시간이 아니면 기저귀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학생간호사 K는 신생아실 간호사의 이야기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신생아 A의 피부통합성을 위해서 기저귀를 즉시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학생간호사 K는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자신이 신생아 A의 기저귀를 교환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 기저귀를 교환하였다.

위 사례에서 학생간호사 K는 임상실습을 하는 중에 신생아실 간호사의 이야기가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윤리적 민감성과 윤리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간호사 K는 본인이 신생아 A의 기저귀를 교환해도 되는지를 허락을 받았으므로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에 신생아 A의 기저귀를 직접 교환하였으므로 윤리적 행위의 실행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개념의 부가사례

3.6.1 유사사례

유사사례는 관심개념의 속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말하며[8], 유사 사례를 통하여 실제 개념의 명확하고 중요한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22세 학생간호사 P는 신생아실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었다. 임상실습 도중 신생아실 간호사가 신생아 B에게 분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바로 침대에 눕히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그 후 신생아 B가 구토를 한 것을 발견하고,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신생아 B가 구토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신생아실 간호사는 학생간호사 P에게 신생아 B는 구토를 한 것이 아니라, 입 안에 남아있던 분유가 밖으로 흘러내린 것이라고 하였다. 학생간호사 P는 신생아실 간호사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신생아 B의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유 후에 반드시 트림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학생간호사 P는 신생아실 간호사의 판단을 수용하고, 임상실습 내내 신생아실 간호사처럼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인 후에 트림을 시키지 않고, 바로 침대에 눕혔다.

위 사례에서 학생간호사 P는 임상실습을 하는 중에 신생아실 간호사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잘못된 간호행위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윤리적 민감성과 윤리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간호사 P는 신생아실 간호사의 비윤리적인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비윤리적인 그 행위를 모방하여 실천했으므로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 및 윤리적 행위의 실행력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6.2 반대사례

반대사례는 확실히 그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한 사례를 말한다[8].

학생간호사 L과 J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실습지인 신생아실로 가는 중이었다. 엘리베이터에 붙여있는 신생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실습하고 있는 신생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방문객이 듣게 되었고, 그 방문객은 수간호사에게 컴플레인을 하였다. 수간호사는 학생

간호사 L과 J를 따로 불러 경솔한 행동을 꾸짖었고, 학생간호사 L과 J는 자신들이 꾸짖음을 들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위 사례에서 학생간호사 L과 J는 임상실습 중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였으므로 윤리적 민감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비윤리적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윤리적 판단력을 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간호사에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꾸짖음을 들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보인다. 따라서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 및 윤리적 행위의 실행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6.3 관련사례

관련사례는 분석중인 주요개념과 유사하지만 면밀하게 검토했을 때 다른 개념에 대한 사례를 말하며[8],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개념의 속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련사례를 통하여 개념의 필수적인 특성과 그렇지 않은 특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학생간호사 H가 신생아 C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호자가 보고 왜 학생간호사가 자신의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간호사가 다른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느냐고 컴플레인을 하였다. 학생간호사 H는 보호자가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학생간호사의 간호행위가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학생간호사 H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윤리적 행위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학생간호사라는 신분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위 사례에서 학생간호사 H는 보호자의 컴플레인을 듣고 나서야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윤리적 민감성 및 윤리적 판단력을 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윤리적 행위실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학생간호사라는 신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 및 윤리적 행위 실행력을 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7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확인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들을 말하며, 결과는 개념의 발생 후에 나타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들을 의미한다[8].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11편의 문헌을 통해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분석하였다(Table 2).

3.7.1 선행요인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선행요인은 자기이해[11,13], 지지적 환경[4,13-15,17,18], 윤리적 갈등 경험[4,11,19], 윤리교육 경험[10,12,16]으로 나타났다(Figure 2).

첫 번째 충분한 자기이해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 가치관 및 성장배경 등에 대한 탐색을 의미한다[11,13]. 이러한 탐색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까지 포함해야 하며[11,13], 효과적인 자기이해를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13].

두 번째 지지적 환경은 주변의 어떠한 제약이나 강압 없이 독자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자신의 의견을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4,13-15,17,18],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위해서는 이러한 열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세 번째 윤리적 갈등에 직면했던 경험은 과거에 윤리적 문제를 직면했던 경험을 말하는데[4,11,19],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윤리적 문제를 규명하고[17], 가장 윤리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능력이 개발되고, 향상될 수 있다[12,14,15,18].

마지막 네 번째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은 간호사로서의 윤리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을 의미하는데[10,12,16], 윤리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여 윤리적 판단력을 향상시킨다[16,20]. 이러한 윤리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는 수준에 따라 윤리교육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20].

3.7.2 결과확인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결과는 간호전문직관[10,12],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10,18], 환자안전[10,11,14,18,19]으로 나타났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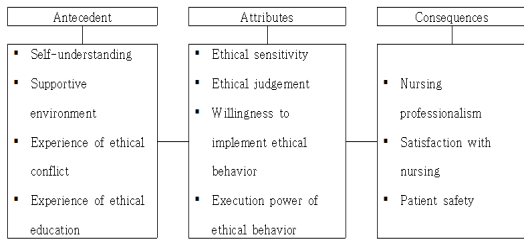


Fig. 2. Conceptual structure of ethical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첫 번째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10,12]을 의미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수준에 따라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달라진다[12].

두 번째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와 간호사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현재 상황을 비교 평가한 결과[10,18]를 말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수준에 따라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정도가 달라진다[10].

세 번째 환자안전은 의료오류와 위해사건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환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10,11,14,18,19]을 의미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수준에 따라 환자안전 정도가 달라진다[4,10,11,17,19].

3.8 개념의 경험적 준거 확인

Walker와 Avant [8]는 대부분의 경우 속성과 경험적 준거가 같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경험적 준거는 그 개념이 존재하는지를 실제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고, 관찰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속성인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판단력,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 윤리적 행위의 실행력과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경험적 준거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학생간호사의 윤리적 민감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Lutzen, Evertzon과 Nordin [21]이 개발하고, Han, Kim과 Ahn [22]이 한국판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학생간호사의 윤리적 판단력을 관찰하기 위해서 Colby 등[23]이 개발한 Moral Judgement Interview (MJI), Kohlberg의 이론을 토대로 Lind [24]가 개발한 Moral Judgment Test (MJT)와 Rest [25]가 개발한 Defining Issues Test (DIT)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논의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은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과 더불어 스스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 및 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윤리역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으며,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마다 개념의 정의와 속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여 사용해왔다[5-7].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개념의 사용범위를 점검하고, 속성 및 선행요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학생간호사에게 있어서 윤리역량 개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다.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윤리역량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12,17]와 윤리역량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13,16]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증재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의 방식이나 교육이 시행되는 조직적 분위기, 교육자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10,12,13,16,17]. Solum 등[12]은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권위적인 학습 분위기와 배움에 대한 학생간호사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임상실습 현장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실수나 지식부족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병원간호사들의 지적에 대한 두려움,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임상실습 현장에서 배운 지식의 차이 그리고 임상실습 현장에서 역할모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간호사에게 역할모형은 윤리역량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17], 학생간호사는 임상실습 현장을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 현장에서 만나는 병원간호사의 행위를 모방하는 배움의 방법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1,17]. 그러나 Cannaeerts, Gastmans와 Casterle [16]는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윤리적 행동을 실천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교육이 학생간호사의 윤리적 차원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거나, 지식과 기술

을 활용하여 직접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3,16]. 이와 같은 동기부여 요인으로는 개방된 분위기에서 시행되는 참여적 교육 전달방식이 있으며[16], 단순히 지식과 기술이 향상된다고 해서 윤리역량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이 아닌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교육[13]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13].

이와 같이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차원 간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간호사의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판단력,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 윤리적 행위의 실행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간호사 스스로의 충분한 자기이해와 학생간호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지지적 환경, 과거에 윤리적 갈등상황을 직면했던 경험 및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경험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향상은 결과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의 방법을 이용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개념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개념은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판단력,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 윤리적 행위의 실행력이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선행요인은 자기이해, 지지적 환경, 윤리적 갈등 경험, 윤리교육 경험이었으며, 결과는 간호전문직관,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환자안전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학생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한 윤리역량의 속성이 잘 반영된 도구 개발 연구를 제안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MY. Moon, AH. Jaung, "Correlation between the nursing practice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medics Association, vol. 13, no. 2, pp. 49-56, 2012.
- [2] H. K. Hyoung, Y. S. Ju, S. L. Im. "A concept mapping study on clinical stress for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4, pp. 394-404, 2014.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0.4.394>
- [3] IS. Jang,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7, no. 3, pp. 749-761, 2016.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6.27.3.749>
- [4] JH. Lee, Y. L. Mo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moral competence: identifying mor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19, no. 3, pp. 107-128, 2012.
- [5] N. Park, C. Peterson, "Moral competence and character strengths among adolescent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vol. 29, pp. 891-909, 2006.
DOI: <http://dx.doi.org/10.1016/j.adolescence.2006.04.011>
- [6] J. J. Liszka, "Moral competence: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study of ethics", Englewood Cliffs:Prentice Hall, 1999.
- [7] P. Jormsri, W. Kunaviktikul, S. Ketefian, A. Chaowalit, "Moral competence in nursing practice", Nursing Ethics, vol. 12, no. 6, pp. 582-594, 2005.
DOI: <http://dx.doi.org/10.1191/0969733005ne8280a>
- [8] L. O. Walker, K. C. Avant,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05.
- [9]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2017, accessed 03 May 2017).
- [10] O. Friedrich, K. Hemmerling, K. Kuehlmeier, S. Nortemann, M. Fischer, G. Marckmann, "Principle-based structured case discussions: do they foster moral competence in medical students? - a pilot study", BMC Medical Ethics, vol. 18, pp. 21-28, 2017.
DOI: <http://dx.doi.org/10.1186/s12910-017-0181-1>
- [11] E. M. Solum, V. M. Maluwa, B. Tveit, E. Severinsson, "Enhancing students' moral competence in practice", Nursing Ethics, vol. 23, no. 6, pp. 685-697, 2016.
DOI: <http://dx.doi.org/10.1177/0969733015580811>
- [12] K. Asahara, W. Ono, M. Kobayashi, J. Omori,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moral competence scale for home care nurses in Japan",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vol. 21, no. 1, pp. 43-54, 2013.
DOI: <http://dx.doi.org/10.1891/1061.3749.21.1.43>
- [13] T. Poikkeus, H. Leino-kilpi, J. Katajusto, "Supporting ethical competence of nurses during recruitment and

performance reviews - the role of the nurse leader”,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 22, pp. 792-802, 2014.

DOI: <http://dx.doi.org/10.1111/jonm.12033>

- [14] N. Cannaerts, C. Gastmans, B. D. Casterle, “Contribution of ethics education to the eth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educators’ and students’ perceptions”, *Nursing Ethics*, vol. 21, no. 8, pp. 861-878, 2014.
DOI: <http://dx.doi.org/10.1177/0969733014523166>
- [15] N. Gopee, “Assessing student nurses’ clinical skills: the ethical competence of men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y and Rehabilitation*, vol. 15, no. 9, pp. 401-407, 2008.
DOI: <https://doi.org/10.12968/ijtr.2008.15.9.30827>
- [16] R. Schaefer, J. R. Junges, “The construction of ethical competence in the perception of primary care nurses”, *Rev Esc Enferm USP*, vol. 48, no. 2, pp. 324-328, 2014.
DOI: <http://dx.doi.org/10.1590/S0080-623420140000200019>
- [17] S. K. Sporrang, B. Arnetz, M. G. Hansson, P. Westerholm, A. T. Hoglund, “Developing ethical competence in health care organizations”, *Nursing Ethics*, vol. 14, no. 6, pp. 825-837, 2007.
DOI: <http://dx.doi.org/10.1177/0969733007082142>
- [18] H. K. Ma, “Moral competence as a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nstruct: a conceptual review”,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vol. 1, pp. 1-8, 2012.
DOI: <http://dx.doi.org/2012/590163>
- [19] K. Asahara, M. Kobayashi, W. Ono, “Moral competence questionnaire for public health nurses in Japan: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validation”, *Japan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2, pp. 18-26, 2015.
DOI: <http://dx.doi.org/10.1111/jjns.12044>
- [20] H. J. Jung, H. J. Park, I. S. Jang,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based upon CEDA debates on moral judgement and ethical valu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248-258,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248>
- [21] K. Lutzen, G. Nordstrom, M. Evertzon,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practic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 9, no. 3, pp. 131-138, 1995.
DOI: <http://dx.doi.org/10.1111/j.1471-6712.1995.tb00403.x>
- [22] S. S. Han, J. Kim, Y. S. Kim, S. Ahn,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Nursing Ethics*, vol. 17, no. 1, pp. 99-105, 2010.
DOI: <http://dx.doi.org/10.1177/0969733009349993>
- [23] A. Colby, L. Kohlberg, B. Speicher, A. Hewer, D. Candee, J. Gibbs,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 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24] G. Lind, Moral judgment test, 2012. [Cited 16 May 2012.] Available from URL:
<http://www.uni-konstanz.de/agmoral/mut/mjt-engl.htm>
- [25] J. R. Rest, “Background: Theory and research. In: J. R. Rest & D. Narváez (Eds)”,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pp. 1-26, Hillsdale, NJ: L. Erlbaum, 1994.

서형은(Hyung-eun Seo)

[정회원]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행정학 박사 과정
- 2016년 2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윤리, 간호교육, 간호관리